

나주시, 배 기능성 소재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방안 모색

배 기능성 소재 연구용역 개발 최종 보고회 진행

작업 후 남은 배박 화장품 원료 저비용 추출법 개발

나주시는 지역 특산품 배를 활용한 상품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배박(배껍질)에 다량 함유된 화장품 원료(알부틴)를 저비용으로 추출,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배 관련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좋은영농조합법인(대표 이기산), 가보팍스(대표 김희성), 농식품가공지원센터(센터장 이승제), 나주배원에농협(상무 박지영)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배 비상품과 활용 고효율 천연 기능성 성분 추출법 개발 및 특허 출원'으로 20여년 동안 배의 상품화에 매진해 온 남승희(엘바이오(주)) 대표가 수행했다. 남 대표는 배 관련 12건의 특허와 10건의 기술이전, SCI급 논문 7건, 상품화 8건 등 배 상품화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저품질과 작업 후 남은 배박에서 천연 알부

틴을 추출하고 그 방법으로 특허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배박에는 주름 개선 및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진 천연 알부틴이 존재하고 브라이트닝(미백)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천연 화장품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특히 나주농업진흥재단 농식품종합가공지원센터 설비를 이용해 저비용의 천연 알부틴을 대량 생산하고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는 향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후속 연구지원 강화와 더불어 배 기능성 성분에 대한 효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식용을 넘어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의 활용 확대에도 힘을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평범 나주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상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부가가치화 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배 산업의 실질적인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2025 화순봄꽃축제 꽃강길 전시 2주간 연장 운영

화순군은 28일 '2025 화순봄꽃축제'에 대한 탐방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꽃강길 일원 주요 전시를 오는 5월1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꽃강길 상상정원과 음악분수 주변의 봄꽃 조형물, 토끼이리, 초화류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봄의 정취를 더 오래 느낄 수 있도록 연장 전시를 결정했다. 연장 기간에는 전시장 내 초화류와 시설물

유지관리도 병행한다. 다만 28일 하루는 연장 전시 준비를 위해 선별적으로 전시물을 철거하는 등 재정비에 나선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류장수 소장은 "이번 전시 연장은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의 정취를 조금 더 선사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시 종료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송순문학상 공모...오는 7월 중 접수

담양군이 조선시대 시가문학의 대가인 면앙 정 송순(宋純·1493~1583)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13회 송순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는 '대상', '새로운시인상'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 새로운시인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을 수여한다. 응모 기간은 7월 한 달간 진행되며, 11월 중

당선작 선정 후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대상 부문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출간된 신작시집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새로운시인상은 첫 시집을 내고자 하는 작가의 시집 한 권 분량(50편 내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장성 방문의 해' 기념품 공모 결과 나왔다

은상 4건, 동상 5건 선정... 5월 10~11일 축제장 홍보관에 전시



좌측부터 은상을 수상한 장성 무빙 마그넷, 어화동등 시리즈, 파랑새 디퓨저, 키링

장성군이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시행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공모 기간인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국에서 50여 작품이 접수됐다. 군은 상징성·생산성·가격·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먼저, 은상은 △파랑새 디퓨저 △장성 무빙 마그넷 △손을 잡은 순간, 기억이 되다(키링) △어화동등 시리즈(공예품)가 선정됐다. 동상에는 △황룡강 해바라기 △노랑의 길 위에서 장성을 거처하다(휴대전화 거치

대) △편백나무 액막이 △장성 나들이 컬러링북 △백양사의 사계절 컵받침이 이름을 올렸다. 대상과 금상은 선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상작은 오는 5월 10~11일에 열리는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기간 운영되는 '장성 방문의 해' 홍보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성의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구례군, 2025년 오이데이 기념 도농상생 구례오이 홍보행사 성료

구례취청오이, 경기도 하남농협서 선보여...4000개 오이 무료 나눔 도시농협과 교류행사 통한 도농균형발전·건강한 농업생태계 활성화

구례군은 지난 4월 29일 오이데이를 기념하여 경기도 하남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도농상생 구례오이 산지 직송 홍보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구례 취청오이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알리고, 오이 소비를 촉진하며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구례군 시설원에 연합회(회장

손성진), 구례농협, 하남농협이 공동 주최했으며, 관련 기관과 단체, 오이 농가, (사)오이생산자협의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행사 참여자들은 4,000개의 오이를 무료로 나누며 구례 오이의 우수성을 직접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례 오이는 지리산의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며, 비타민 C, 미네랄, 칼륨 등 영양이 풍부해 체내 노폐물 제거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구례 오이 농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고, 이번 행사가 도시와 농촌이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오이 모종 및 벚꽃 지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원에 현대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고품질 오이 생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례=양창식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